

여성물리학자의 주류화를 기대한다

글 | 박영아 _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youngah@mju.ac.kr

산업화 시대를 거쳐 본격적인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는 21세기의 화두 중의 하나는 단연 여성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우리는 여성지위의 비약적 발전과 활발한 사회경제적 진출을 보아 왔다. 특히 전문직분야의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모든 분야에서 놀랄만한 여성의 진보가 있었다.

물리학 분야 진출 여성, 다른 분야보다 매우 적어

우리 나라의 경우,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근대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전문직 진출은 인문학과 예술, 문학 등의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1980년대 초에 여성법조인 여성과학자, 여성공학자, 여의사는 희귀한 존재였고, 동경의 대상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가장 딱딱하고 비여성적이라 여겨졌던 법조 분야에서 신규 판·검사 임용에서 여성이 50%가 넘어서게 되면서 오히려 법조분야는 여성에게 맞는 분야라고까지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신규 의사면허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36%로 늘어나는 등 의료분야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법조 및 의료 분야 전문직에서 여성이 소수가 아니며 멀지않아 다수가 될 날이 올 수 있다고, 기존의 남성 법조인 및 의료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달리 과학과 공학 분야는 아직도 여성이 소외되어 여성과학자 여성엔지니어는 예외적인 존재이고, 여성은 선천적으로 이와 같이 지극히 남성적인 분야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변에 역할 모델이 희소한 상태에서 이러한 선입견 내지 고정관념을 반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여타 분야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힘입어 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여성과학자와 공학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생명과학과 같은 소프트 사이언스 분야에서 여성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며 이미 주도적으로 학문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학, 물리학 및 공학을 기초로 하는 하드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공공연하게 여성의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주류화가 가장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여성을 과학계에서 주류화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 공식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된 1999년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과학대회(<http://www.unesco.org/science/wcs>)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에서 여학생에 대한 과학 교육, 과학기술에 성 주류화 정책 수립, 국제적 네트워킹의 강화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인류가 지닌 잠재적 자원 가운데 아직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여성인력을 과학의 연구개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참여시키는가가 한 국가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블록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리학분야의 경우 1999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물리연맹(IUPAP) 총회에서 IUPAP 여성물리실험그룹의 결성이 스웨덴 대표단 바라니 박사에 의해 제안된 것은 전세계의 많은 여성물리학자의 인생에 영향을 준 획기적인 일이었다. 바라니 박사의 여성물리실험그룹 결성 제안은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제안된 것으로 만일 조금만 더 이른 시기에 제안되었다면 총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바라니 박사의 제안은 많은 논란 끝에 받아들여졌으

며, 왜 극소수의 여성만이 직업인으로서 물리학 분야에 진출하는지 알아내고, 또한 이 분야에 여성의 참여와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물리학에서의 여성'에 대한 실무그룹(WGWIP)을 결성하라는 결의문이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당시 세계물리연맹 집행부의 유일한 여성이사였던 미국의 주디 프란츠 박사를 중심으로 여성물리실무그룹을 결성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 1999년에 브라질의 바르보사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9명의 여자물리학과 2명의 남자물리학자로 이루어진 여성물리실무그룹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물리학계 여성의 주류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2008년 서울에서 3차 세계여성물리대회 열릴 예정

실무그룹은 2002년 3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계물리연맹 후원으로 제1차 세계여성물리대회를 개최하였다. 1차 대회에는 전세계 65개국으로부터 300명 이상의 물리학자가 참여하였으며, 이중 15% 이상은 남성물리학자였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물리학자의 숫자는 왜 그렇게 적은가?', '어떻게 하면 물리학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모인 명실상부한 국제대회였다. 이 대회에서는 각국 여성물리학자 현황을 검토하고, 물리학분야 진입에의 장벽, 여성의 물리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결의안이 2002년 IUPAP 총회에 제출, 통과되었다.

물리의 해인 2005년에 개최된 2차 대회의 목적은 2002년 1차 대회 후의 3년간 이루어진 진전을 점검하고, 여성을 물리학 연구

에 진입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이 유효하고 성공적이었는지 논의하는 것이었다. 또한 각국에서 이루어진 성공담을 공유하고 나누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참가자의 물리분야의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42개국에서 참가한 143명의 참가자들에게는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한국물리학회와 중국, 남아공화국과 경합 끝에 제3차 세계여성물리대회 한국유치에 성공하여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대회는 60여 개국 300여 명의 각국 대표단과 국내 200여 명의 물리학자가 참가하는 명실 공히 국제적인 학술대회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세계물리연맹 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다수의 국제물리연맹 관계자 및 우수 학회의 회장단이 세계여성물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내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회를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한국 물리학계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국내적으로는 물리학분야의 중요성 인식과 기반 확충을 계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과학계에서 여성의 진출이 가장 미약한 물리학분야에도 우수한 여성인적자원을 진입시키고, 양성하여 주류화를 이룰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 이제 2008년 10월 개최까지 1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세계여성물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우리 한국과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다.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릴랜드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물리학회 부회장·여성위원장, 제3차 세계여성물리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